

믿음인가? 소망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믿음은 지금이며 현재 시제이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도 소망적인 요소가 있고, 소망에도 믿음적인 요소가 있지만 소망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차적으로 현재 시제이다. 그러나 소망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중요한 것은 소망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계속 미래형으로 남는다. 그러나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로 받아드리고 성취된 사실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다. 지금 나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고, 이루어진 현실로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계속적으로 소원과 희망 사항으로 남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에 소개된 두 맹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우리의 눈을 떠 주소서!”라는 말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공훈과 자비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분의 공훈과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눈이 떠질 수 없다는 고백이니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자기들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서 공훈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라는 질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질문이다. “내가 누구인 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실히 하는 질문이다. 그러자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 이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하시니 저들의 눈이 밝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두 맹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들의 먼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다.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능력을 베푸신다면 자기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들의 눈이 보게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소망으로 눈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공훈과 능력을 베푸신다면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다. 지금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지금 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대로 되라고 하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의 공훈과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믿는가? 아니면 마냥 무작정 예수님의 공훈과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고 소망할 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는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찾고 계신다.